

봉축사

오늘은 금강대학교 국제선원에서 불기2564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기 위해 등불을 밝히는 날입니다. 금강대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매우 기쁘고 뜻깊은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총장으로서 점등식 행사에 참석하게 된 것을 개인의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를 아름다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이곳 계룡산은 ‘새로운 한국의 중심이 되고 더 나아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우리나라 국운융성의 정기가 한데 모인 명산 중에 명산이라고 옛 문헌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세계적 인재양성을 위한 금강대학교 설립을 유지로 내리신 대한불교천태종 중창조이신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세계관과 위신력을 인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유지를 받들어 학교를 세우고 지원해 오신 천태종단의 대덕스님들의 혜안에 대해서도 머리 숙여 마음으로부터 경의를 표합니다.

21세기 두 번째 10년을 시작하는 금년 초부터 지구촌에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정치 이데올로기의 양극화는 점차 더 심해지고, 경제는 대공황 직전처럼 위축돼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코비드-19(COVID-19)라는 글로벌 역병이 지구인들의 몸과 마음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비상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천태종 전국 주지스님들께서는 사찰이 아닌 개별 가정에서 생활기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앞장서 생활불교를 실천해 오셨고, 법문 역시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불자님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솔선수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실천하고 계시며, 이를 통해 국난극복의 마음을 모아 국가적 위기 상황을 모범적으로 대처하시고 계십니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 행사 일정을 마침 금년에 윤달이 있음을 계기로 5월 30일로 한 달 늦춰 진행하시는 것 또한 코비드-19 극복을 위한 불교계의 지혜가 아닐 가

짐작합니다.

금강대학교 가족 여러분! 이번 주말이 되면 제가 금강대학교 총장 임무를 시작한 지 꼭 세 달이 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날 점등식에 참석하면서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발원하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우리 금강대학교가 최근의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유지에 따라 세계적 인재양성의 명문 대학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점등식에서 금강인 모두는 각자 맡은 소임을 다 할 것임을 다짐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캐치프레이즈가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강인 모두 부처님오신날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는 봉축 점등식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금강대학교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학교법인 사무처장이신 정장호 국제선원 원장스님과 대덕스님들께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교수님, 직원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불기 2564년 5월 22일

금강대학교 총장 정용덕 합장